

대안공간 풀 주최 회화워크숍의 진행 내용을 소개합니다.

1. 특강

○ 변증법적 회화사상(전용석); 사방에서 회화가 죽었다고 난리다. 이럴 때는 이런 사태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무엇이 중간에 뒤틀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서구 미술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온 순간들을 다시 방문하여 아방가르드 회화의 초심으로 되돌아 가보는 작업이다. 주로 신미술사 연구자들이 새롭게 밝혀 온 내용을 위주로 하여, 회화적 실천이 정치의식과 만나면서 새로운 상상력들이 생성된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근대적 재현의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모순’과 ‘페리독스’를 사유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상상력의 위기가 곧 재현의 위기의 본질임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것을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일반적 전개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포스트모던한 모더니즘 독해이다.

○ 회화의 복합성(심광현); 현대회화는 고전주의적 알레고리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면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모호하게 개방적인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 푸코는 갈릴레오가 그렇게 스캔들을 일으켰던 이유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라기보다는 무한하게 개방된 공간 개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근대적 공간 개념은 중세의 면적, 구획적 공간을 끝없는 운동 속의 한 점으로 축소, 용해시켜버리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었다.(쿠르베의 리얼리즘이 가지는 ‘모호함’과 ‘몰입’의 파괴력을 기억하는가?) 이것이 바로 현대회화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인지했던 개방성이고 공공성이다. 이것을 표현의 문제와 관련시키면 곧 ‘복합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회화는 어떻게 그 개념을 사유했을까?

○ 한국 현대회화의 전개(백지숙); 한국에서 현대회화에 대한 이해는 개발 드라이브 시기를 거치면서 기묘하게 신화화되고 탈정치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줄곧 있어 왔지만, 한편으로 다른 흐름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지는 못했다. 이 강의는 한국 현대회화 전개에 대한 대안적 구성의 시도, 혹은 그 식민적 수용에 대한 해체의 시도이다.

○ 근대성과 시각매체의 분화(주형일); 근대성의 신화 가운데 강력했던 것들 중 하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이다. 때로는 계몽의 기획과, 때로는 낭만주의적 프로그램과 연합했던 이 개념은,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요청’이자 ‘욕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애’로 오해되어 왔고, 이에 기초하여 장르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예술의 신화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제 이 오해를 바로잡자.

○ 정신분석적 회화담론(김수현); 종종 모더니즘은 계몽의 관점에서만 정의되고는 한다. 일부 포스트모던 비평의 선정적 경향은 언제나 나쁜 사례들만을 인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이론적 모더니즘의 본질을, 허위의식의 배후에 있는 ‘실재적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맑스-니체-프로이트라는 위대한 삼인조의 한 축을 다룬다. 이러한 관점은 곧 라캉의 관점이기도 한 것으로, 회화에 기록되는 응시가 주체에 속한다기보다는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회화평면이 주체의 자기현존과 그의 시각적 전망을 보장하기는커녕 그 투명한 가시성을 방해하며 나와 그림의 관계에 있어 환원 불가능한 분열로 이끄는 얼룩들이라고 간주하고 그 기제의 분석을 시도한다. 인용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모더니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독해의 일단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 도시담론과 미술(박관경); 도시는 근대성 담론이 궁극적으로 구체적 형태를 부여받는 장소이다. 우리는 아방가르드가 명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도시 공간을 그 개입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타푸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시 재현의 이미지가 변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전형적으로 도시적 매체인 사진의 분열적 기능-실재를 환영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는-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아가서 회화의 메커니즘이 사진을 어떻게 전용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립했는지, 그리고 현실의 공간과 그

이미지의 통약불가능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작가방문 및 초청: 김지원, 민정기(이상 방문), 정서영(초청)

3. 패널 토론

○ 한국현대회화의 전개/김용익(작가, 경원대교수), 홍명섭(작가, 한성대교수)

백지숙씨의 강연에 덧붙여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을 겪어 온 작가들의 생생한 이야기

○ 현대 회화의 문제영역들/박찬경, 전용석 등

복잡해져 가는 문화상황에 대해 회화가 뽑아낼 수 있는 문제영역들의 이슈화에 대한 논의

4. 작품 크리틱

○ 1차(8월 16일)/최진욱, 이영욱, 전용석 ○ 2차(8월 21일)/정서영, 최진욱, 전용석

참가자들은 워크샵 기간동안 작품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지원서 마감은 7월 15일입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차로 홍보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대안공간 풀 altpool@kornet.net 735-4805, 전용석 bluscape@hanmail.net)